



12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

이경아 연구원

-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2월 중 99로 전월에 비해 4p 하락하였음.
 - 소비자심리지수¹⁾가 전월에 비해서 하락하였다는 것은 향후 6개월 동안의 소비 및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.
 - 올해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 99로 전월 대비 3p 하락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4p 하락함.

- 구성항목 중 경제상황 인식에 관한 세부지표의 하락 폭이 컸는데 특히 취업기회전망심리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.
 - 현재경기판단심리지수 및 향후경기전망심리지수는 68과 78로 각각 전월대비 7p, 8p 하락하였으며, 취업기회전망심리지수는 82로 전월대비 9p 하락하여 지난 10개월 간 중 가장 크게 하락하였음.

-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전월대비 0.1% 하락한 4.0%로 여러 물가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높은 물가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 - 구간별 응답비율을 살펴보면, 3.0~4.0% 구간 응답비율이 34.1%, 4.0% 이상을 선택한 응답자가 51.5%로, 지난 10개월간 평균 기대인플레이션 4.1%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음.

(한국은행, 12/27)

1) 향후 6개월간 가계의 소비심리,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, 자산가치 등 세부지표 항목에 대한 표준가구의 설문조사 응답을 100으로 조정하여 합산한 값을 기준기간('99. 1/4~'08. 2/4) 동안의 평균을 기준으로 다시 지수화한 수치임.